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ECRETS OF SELKIE BAY

가제 : 셸키 베이의 비밀

저자 : Shelley Moore Thomas

출판사: Farrar, Straus and Giroux

발행일: 2015년 7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편지를 남기고 사라진 엄마, 진실을 밝히려 나선 두 소녀와 마법이 현실이 되는 독특한 이야기,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코디는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코디의 책장 속에 낡은 책 한 권에 슬그머니 끼여들어 있었는데 그 동안 알아채지 못한 것이 이상할 뿐이었다. 엄마가 옛날부터 간직했던 전래동화책인 ‘셀키 동화’는 ‘마틸다’와 ‘노란 요정 이야기’ 사이에 꽂혀 있었다. 꺼내서 표지를 보니, 많이 닳고 헤어져 있었다. 코디가 아직 요정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던 시절, 엄마를 졸라 몇 번이고 읽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생 아이온이 생긴 이후 언제부턴가 이 책은 보이지 않았고, 코디는 동생이 잘게 찢어서 인형 옷을 만들었거나 보물찾기 놀이를 한답시고 마당에 물어버렸거나, 더 어릴 때 자주 그랬듯이 그냥 종이째 씹어 먹어버렸겠거니 생각했었다.

표지를 넘기자, ‘셀키 동화책’이라는 큼직한 글씨체로 된 제목과 그 둘레를 상자 모양으로 감싼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물개 여러 마리가 기다란 미역이며 진주, 조개껍질과 함께 즐줄이 이어진 그림이다. 어릴 적 열네 마리 물개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지만 이제 그 이름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코디는 얼른 책을 덮고 있던 자리에 꽂는 대신 품에 가지고 다녔다. 아버지 침대를 정리하려는데, 책 속에서 그 편지가 툭, 떨어졌다. 촘촘하고 꼬부랑꼬부랑 구부러진 독특한 글씨체가 영락없는 엄마 글씨였다.

물개에서 사람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신화 속 존재 셸키, 정말 엄마가 셸키로 변한 걸까?

‘사랑하는 코디야, 엄마는 네가 조만간 이 편지를 찾을 거라는 걸 안단다. 요 책벌레 녀석. 너에게 이 편지를 직접 쥐야했는데, 엄마는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단다. 언젠간 너도 다 이해할 날이 올거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엄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가야해. 얼마나 떠나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노력할거야. 엄마가

없는 동안, 아빠를 잘 보살펴주길 바란다.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네가 아빠를 돌봐드려야 해. 코디야, 엄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 부탁한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엄마. 코디의 여동생은 엄마가 물개에서 사람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전해지는 신화 속 존재인 ‘셀키’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코디는 이 엉뚱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로 동생을 달랜 자기 탓이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려면, 코디는 숨겨진 ‘셀키 섬’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위험천만한 여행길, 사고뭉치 여동생과 함께 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과연 코디는 위험천만한 여행길에서 어떤 답을 찾게 될까?

<저자 소개>

셸리 무어(Shelley Moore)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전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책 《Good Knight》 시리즈를 발표했다.

제목 : THE LIFE AND LOVES OF JESOBEL JONES

가제 : 제저벨 존스의 삶과 사랑

저자 : Anna Mainwaring

출판사: Portal Press

발행일: 2014년 10월 30일

분량 : 1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영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소녀 제스, 학교와 집에서 벌어지는 소소하지만 명량하고 유쾌한 사건들
5월의 어느 화요일, 제스는 단짝 친구 이지, 한나와 아침부터 셋의 은신처인 한나네 집 지하창고에 모여 있다. 오늘은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 일년 중 가장 떨리는 등교길이 될 예정이다. 이 특별한 날에는 교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살히 분석된 후 단 몇 초 안에 페이스북에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제대로 꾸미고 가지 않으면 당연히 사진 밑에 독설이 가득 달리겠지.

제스의 정식 이름은 제저벨. 스스로는 꽤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기에 불만이 없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처음 이름을 소개하면 누구든 소스라치게 놀란다. ‘제저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마녀로 마법을 부리고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처형을 당했고, 그 시체는 개에게 먹이로 던져졌다고 전해진다. 곧게 뻗은 짙은 색 머리카락이 매력적인 이지는 마치 잡지 속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완벽한 모습이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폭 빠져있던 그녀는 어느새 스스로 정말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소위 ‘착한 마녀’로 변신했다. 심지어 학교 아이들도 이지의 말을 믿는 눈치라 더 어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싫어할 이유도 없었다. 그 옆에 앉은 한나는 짙은 붉은색 곱슬머리에 창백한 얼굴빛, 커다란 눈이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공주를 연상시킨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열한 과목이나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 얼굴만 예쁜 친구가 아니었다.

이 매력 넘치는 친구들 사이에 선 제스. 아니나다를까 한나는 제스가 입고온 옷을 훑어보더니 소리를 꺾 지른다. 사실 두 친구들처럼 평소 외모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성격이라 다른 날 같으면 웃어넘기겠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다. 제스는 결국 이지의 성화에 못 이겨 스키니진, 낡은 티셔츠를 벗고 짧은 치마에 레깅스,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허리선이 드러나는 코트를 걸쳤다. 옷 잘 입기로는 둘째가라면 엄마가 보면 여전히 한숨을 푹 쉬겠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스. 세 여학생은 잠시 마카롱을 정신 없이 먹어 치운 뒤, 화장과 머리 단장까지 마치고 드디어 등교길에 오른다.

그저 그런 여학생에서 유튜브 스타가 되어버린 제저벨, 늘 속깊던 그녀의 마음에 찾아온 갈등들

재미있는 성격에 바른 말을 곧잘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제벨 존스. 늘 정신 없는 가족들을 잘 견디며 엉뚱하지만 착한 두 친구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스의 의도와 전혀 상관 없이 어느 날 유튜브에서 자신이 일약 스타가 되는 일이 생기고, 남몰래 좋아했던 남학생까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제스 앞에는 힘든 선택을 요구하는 딜레마가 이어지고, 마침내 제스는 고민에 빠진다. 과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저자 소개>

애나 메인웨어링(Anna Mainwaring)은 고등학교 교사로 위 작품을 첫 소설로 완성했다. 실제 가르친 여학생들을 매일 접하면서 많은 소재를 얻었다. 제제벨이라는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흥미진진한 시리즈를 쓸 계획이다.